

7 장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마태복음 5:7)

Here let him learn compassion for those who fail.

긍휼: 승리에 오만해지지 않고 패자를 덕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비열한 일등보다 당당한 이등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영국 고등학교에 일본 학생 한 명이 이민을 와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 일본 학생이 오기 전까지 브라운이라는 학생이 늘 전교 일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학생이 오면서부터 전교 일등 자리가 그만 바뀌고 말았습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그 일본 학생이 전교 일등을 맡아놓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학생들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것은 브라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등 자리를 되찾아보려고 노력해봤지만 시험을 보면 번번이 일본 학생이 전교 일등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학생이 그만 병이 들어 꽤 여러 날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영국 학생들은 '이번에는 당연히 브라운이 전교 일등을 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 밖에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 일본 학생이 전교 일등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학교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일본 학생이 전교 일등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일본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브라운이 날마다 병원을 찾아와 그날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르쳐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없었는데도 전교 일등을 놓치지 않은 일본 학생도 대단하지만,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학생에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전해주고 노트를 배끼게 해준 브라운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남의 일등을 언제나 시샘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비열한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이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대방의 일등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한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고 근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 붙이기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유학 중에 직접 보았던 일인데,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17 년이나 지나서 이제는 중고차도 아니고 정말 고물차가 다 되어버린 자동차를 예쁘게 장식한 다음, 신혼여행 가는 자동차의 상징인 깡통을 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타고 가는 것을 보고는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17 년 된 고물차, 녹이 슬고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차를 신혼여행 차로 꾸미고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벤츠를 타는 사람이 되기보다 17 년 된 고물차를 타고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밝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 아이들이 벤츠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함과 자신감을, 어떻게 벤츠를 탔느냐 고물차를 탔느냐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이들이 17 년 된 고물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벤츠를 타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으며 인정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축하해줄 수 있는 여유와 자신감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사회적 구조만 생각하고 모든 성공과 승리를 다 사회적 환경 탓으로만 생각하여 성공과 승리 자체를 부정하고 죄악시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의한 세상은 100 년의 실험을 끝으로 실패했습니다.

저도 불의한 사회적 구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조를 바꾸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제 아이들이 그와 같은 불공평한 구조를 이용하여

쉽게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도적질하는 것이 싫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 아들이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과 지위를 백분 활용하여 아버지의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형교회 목사 아들이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성실히 공부하며 목회의 길을 가려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 목사 아들이나 그렇지 못한 가난한 신학생과 목회자 모두 공정한 기준과 상황 속에서 경쟁하는 구조를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특권과 지위를 잘 이용한다면 남들보다 쉽게 목회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같은 마음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혀를 깨물고서라도 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몰아부칠 것입니다.

자세는 낮추되 실력은 낮추지 말라

저는 불의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도적질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들의 분노를 압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게으름과 실수까지도 다 불의한 세상의 구조 때문이라고 핑계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무조건 모든 승리와 성공을 시기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제 아이들에게 공정한 게임을 요구하겠습니다.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게임에서 패배했거든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인정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승리를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축하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야 세상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승리를 무조건 부정하고 시기하고 죄악시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세상이 절대로 진보하고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게임을 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괜히 겉멋이 들어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게 하고 누웠으니' 하는 식의

삶을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승리를 하찮은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게만 게임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 승리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고지를 정복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은 좋으나 실력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방면에서 성실하게 자신과 싸워 승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꼬으며 계산해봅니다. '앞으로 몇 년쯤이면 우리 아이들이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죽어서 천국에서 보아도 아무 문제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게임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한 후 그 승리에 도취하여 교만한 자가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패배한 자를 우습게 여기며 깔보는 사람이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패한 자들을 함부로 해도 되는 패잔병으로 취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게임에서의 승리와 패배가 인격의 차이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패배자의 최선을 인정하며 승리와 패배의 차이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승자의 입장에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배한 자를 격려해주고 그들과도 친한 친구가 되어 그들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도움도 받을 줄 아는 승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자가 되었을 때 겸손하여 패자를 격려하고 승자와 패자가 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패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패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최선을 다한 승자를 인정하고 축하해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근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 부함과 가난, 그리고 승리와 패배를 뛰어넘는 근사한 삶을 살려면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 부함과

가난, 그리고 승리와 패배를 뛰어넘어 더욱 훌륭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발은 땅에, 눈은 하늘에 두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남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정말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종과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학력과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신과 학력과 지위를 소개합니다. 그와 같은 세상적인 조건에서 하나도 뒤질 것 없던 바울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와 같은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승자와 부자의 겸손함, 패자와 가난한 자의 당당함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름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서의 가난과 부함 그리고 승리와 패배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리 그것에 초연하여 겸손할 때 겸손하고 당당할 때 당당할 뿐 아니라 승패나 빈부와 상관없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증거를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하늘을 바라보게 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세상에서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서로 친구가 되어 서로 유무상통하는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사는 자녀로 기도하며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게 하지만, 세상을 초월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써 승리에 겸손하고 패배에 당당한 삶을 사는 근사한 자녀로 욕심내며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 앞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중에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위에 "승리한 자를 인정하고 축하해줄 줄 알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덧붙여 생각해보았습니다.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승자와 승리한 자를 인정하고 축하해줄 줄 아는 패자는 참으로 근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다보면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승리만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경주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주하면서도, 승패를 떠나 승리에 겸손하고 패배에 당당할 수 있다면 그는 언제나 잘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 이렇게 키워라 ...

1. 비열한 일등보다 당당한 이등에 자부심을 갖도록 자녀를 교육하라

남의 일등을 언제나 시샘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비열한 본성이 인간에게는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이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등수가 10 등, 20 등이라 할지라도) 일등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항상 정정당한 경쟁을 펼치는 자녀로 키워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스케일을 가진 사람으로 장성하도록 기도하라

2.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게임을 하라고 가르치라

괜히 겉멋이 들어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게 하고 누웠으니' 하는 식의 삶의 스타일을 자녀에게 가르쳐서는 안된다. 승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공정하게 게임을 해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라고 요구하고 응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자세는 낮추되 실력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라.

3.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큰 복은 없다

자녀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는 이치에서도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당신의 자녀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녀는 온전한 덕성을 소유하게 된다.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에 오만해지지 않으며 패자를 긍휼히 여기게 된다